| 현불 논단 |

금수저보다 귀한 보살정신



황수경
불교상담개발원 이사

세일전자 화재서 동료 구하고 희생
2016년 서교동 빌라 방화 사건에서
집집마다 화재 알렸던 故 안치범 씨
자기희생 정신을 기려 '義人' 존경

그들은 금수저 아닌 '金마음'을 가져
금보다 귀한 自利利他 보살행 실천해

나보다 남을 생각하는 마음이 '한마음'
자타불이의 대승불교 보살행 확산되길

얼마 전 인천 남동공단의 세일전자 화재로 근로자 9명이 사망하였다. 그 중에는 위험을 피할 수 있었지만 동료를 구하려고 화마 속으로 뛰어 들어간 두 사람이 있었다.

민 모 과장(35)은 화재를 처음 목격했지만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위험에 빠진 직원들을 대피시키려고 "불이야"라고 외치며 불길 속으로 들어갔다고 한다. 본인은 끝내 다시 나오지 못했다.

김 모 씨(51 · 여)도 탈출하는 대신 동료들을 돕기로 선택했다. 김 씨는 남아 있을지도 모르는 동료들에게 화재를 알리기 위해 각 제품검사실을 돌며 문을 두드렸다고 한다. 그러다 본인은 결국 희생된 것이다.

2016년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다. 서울 서교동 빌라에 방화가 있었을 때, 故 안치범 씨는 불길 속으로 들어가 5층 빌라 전체에 화재를 알렸다. 덕분에 빌라 주민 20여 명 모두가 화마를 피할 수 있었다. 그런데 정작 안 씨 자신은 빠져나오지 못하고 목숨을 잃은 것이다.

그는 28세 성우지망생이었다. 한국성우협회는 생전에 성우를 꿈꿨던 안 씨를 명예회원으로 인증하는 패를 유족에게 전달했다. 협회 측은 "그의 마지막 목소리는 많은 사람을 살려냈다"며 안 씨의 죽음을 애도했다고 한다.

세상에 자기 목숨을 걸고 남에게 "위험해요. 어서 피하세요"하고 알려주는 음성보다 귀한 것이 있을까. 생명을 살리는 음성보다 감동적인 것은 없을 것이다.

탐 · 진 · 치가 들끓고, 갑질과 악행에 대한 소식들이 만연한 사회에서 가끔 이렇게 남을 위해 희생하는 훌륭한 분들을 만날 수 있다.

재산이 많거나 고학력이거나 지위가 높지 않아도, 이 분들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며 의인(義人)이라고 불리고 있다.

누구든지 고통은 싫어하고, 위험을 피하고 싶다. 위급한 순간에 자기보다 남을 생각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그 분들은 금수저는 아닐지 몰라도 '금마음', 남을 생각하는 금보다 귀한 마음을 실천했다.

영화 〈신과 함께 2-인과 연〉에서는 망자 중 귀인(貴人)을 따로 분류한다. 여기서도 귀인은 신분이 높거나 업적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다. '항상 남을 배려하고 돕는 삶을 산 사람'이라고 한다. 이 모두는 바로 요익중생하는 대승보살을 가리키고 있다. 오늘도 소리없이 남을 생각하는 분들의 정성과 노력으로 우리 사회는 살아갈 만하다.

불자로서 자신은 타인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된다. 목숨 걸고 희생까지는 못하더라도, 누구든지 자기중심적인 이기심을 내려놓고 조금 더 다른 사람을 배려하며 살아갈 수는 있다.

하물며 자신의 힘이나 지위를 이용해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상처를 주는 일만큼은 당장 그만두어야 할 것이다. 지옥행 티켓은 빨리 취소할수록 좋다.

우리는 본래 무한한 지혜와 자비를 가진 부처님이다. 대행 스님은 "나보다 남을 생각하는 마음, 그 마음이 마침내 온 우주와 함께 하는 한마음인 것이다"라고 하셨다.

'나'를 고집하고 '나'만 생각하는 마음을 내려놓으면 저절로 남과 한마음이 된다. 나와 남이 공심공체임을 인정하는 사람, 자기 이득을 내려놓고 남을 생각하고 자비를 실천하는 사람이 진실한 귀인, 진짜 VIP인 것이다.

불자 수가 감소하는 요즘, 자타불이를 실천하는 대승보살의 마음과 행이 한국불교에 가득하기를 발원한다.



기자칼럼

불교는 저작권 사각지대인가

신성민 취재부 부장

지난 8월 초 '다워니 스님' 카툰을 그리는 서주 스님의 페이스북에 2장의 일러스트와 "이러지 마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오른쪽이 제 그림이고, 왼쪽은 다른 분이 본인 페이스북에 올린 그림입니다. 보시다시피 저작권을 밝히는 Dawonyee도 지우고 주변에 채색을 하는 등의 편집을 했습니다. 꽤 오래전에 작가들의 저작권을 존중해주시라는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적어도 작가에게 사용가부를 먼저 물어보는 것이 먼저고 불가한 경우라면 출처를 반드시 밝혀달라는 내용입니다."

중국 네티즌으로 보이는 도용자는 서주 스님의 그림에 서명도 지우고 자기 그림인양 자신의 페이스북에 버젓이 게재한 모양이다. 메신저로 대화를 요청해도 답변이 없다가 결국에는 그림을 지우고 사건은 일단락됐다.

이 같은 사례는 불교계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실제 지난해 한 불화 작가는 불교상품제작사가 자신의 작품을 도용한 사례를 페이스북에 올리고 이제 좌시 않겠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작가들의 작품이 좋아서 자신의 SNS 계정에 공유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들의 작품을 홍보해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무단으로 게재하는 것은 엄연한 저작권법 위반이다. 작가가 고소해도 변명의 여지가 없는 불법행위다.

참고로 저작권 침해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침해간주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최근에는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네이버 · 다음 · 레진 코믹스 등 웹툰업계가 연대해 최근 무단 웹툰 개제 사이트를 적발한 것은 이런 사회 분위기를 방증한다.

또한 한국저작권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저작권 시장은 계속 성장 중이다. 2016년 2370억 원의 저작권 사용료가 징수됐다.

이 같이 사회적으로 저작권 의식은 높아지고 있지만, 불교계는 예외인 것처럼 보인다. 찬불가 악보 저작권도 제대로 지켜지는 경우가 많지 않고, 사진 도용은 이제는 새삼스러운 일이다. 불교계 주요 언론 뉴스 콘텐츠를 소규모 불교 인터넷 언론에서 무단으로 전제하는 사례도 많다. 심지어 본지 워터마크(지폐나 컴퓨터 등의 분야에서 불법복제를 막기 위해 개발된 복제방지 기술)가 붙어있음에도 버젓이 게재하는 경우도 있었다.

저작권은 창작물을 만든 사람이 자신의 창작물에 가지는 법적 권리다. 작가들은 법적 권리를 인정받고 이에 대한 사용료를 받는다. 자신의 작품을 사용하는 대신 적절한 값을 지불받는 것이다. 이를 통해 창작자는 자신의 생활과 작품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

불교에는 법보시라는 문화가 있다. 남에게 부처의 가르침이나 불서(佛書)를 베푸는 것은 공덕을 짓는 숭고한 행위다. 하지만, 이것이 지금의 작가들을 착취하는 문화로 변질되어서는 안된다.

현대사회에서 문화콘텐츠를 발전시키려면 그에 걸 맞는 시장이 필요하다. 시장 형성도 이루지 않고 불교문화콘텐츠 발전을 논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공유 시는 출처를, 사용할 땐 제 값을 내자. 그래야 불교 문화가 산다.

社說

나란다 축제 10주년에 부쳐

불교계를 대표하는 어린이 청소년 문화축제, '나란다 축제'가 10회를 맞는다. 청소년 불교교리 경시대회로 출발한 이후 발전을 거듭한 나란다 축제는 불자가 아닌 일반 어린이 청소년들도 대거 참여하는 문화행사로 발전했다.

2012년부터 대회 명칭을 나란다 축제로 확대개편해 모든 세대가 한데 어우러지게 했다. 일반부와 군장병, 사관생도까지 참여했다. 최근에는 3000명이 넘는 군장병들이 참여하기도 하는 등 대회 열기가 확산되고 있다. 그동안 10만명이 행사에 참가했고, 장학금도 무려 8억원이 넘게 지원됐다.

문제는 이 같은 나란다축제의 성공과 별개로 불교계의 다른 어린이축제가 미미하단 점이다. 조계종 직할교구가 진행하는 천진불 한마당, 불교레크레이션협회가 진행하는 어린이청소년 연꽃노래잔치, 국제포교사회가 진행하는 어린이영문자타카암송대회 등이 있지만 각기 운영주체의 축소, 주최측의 재정적 어려움, 참가사찰의 감소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나란다축제의 발전 이면에는 대회를 꾸준히 개최해 온 은정불교문화진흥원의 노력이 있었다. 확고한 주최측의 의지와 재정적 여건이 뒷받침 될 때 어린이 청소년 포교는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각 지역의 교구본사들이 지역 봉축행사, 개산대재, 산사음악회처럼 별도의 어린이 청소년 문화축제를 마련해 어린이 청소년 포교에 경주해야 한다. 지역의 불자들이 함께 연대해 어린이 청소년을 불교로 이끄는 노력을 함께 기울여야 한다. 이미 부산 등 몇몇 지역에서는 청소년 문화축제를 열고 있다. 이제는 전국적인 연대를 통한 어린이 청소년 포교의 새장을 열 때다.

재생에너지 사업, 유휴지 살린다

한국불교 장자종단인 조계종이 사찰 유휴토지에 친환경 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한다. 그간 유휴토지 활용방안 마련에 어려움을 겪던 불교계에 공익적인 사회 기여가 이뤄질지 기대를 모은다.

지난해 말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20%로 늘린다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올해 신규 재생에너지 보급은 태양광 665MW, 풍력 72MW, 기타 693MW로 전년 대비 약 2배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자가용 태양광 수요가 급증하면서 전국적으로 100여 개의 협동조합과 1965호의 농가가 태양광 사업에 참여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거뒀다.

하지만 이는 반대로 환경 훼손과 입지 갈등, 부동산 투기 등 부작용을 낳기도 했다. 이에 정부가 관련 대책을 내놓으면서 현재까지 재생에너지 사업은 순항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불교계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태양광을 중심으로 한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검토가 이뤄졌다. 다만 종단차원에서 추진되지 않고 개별 사찰들이 각자 검토함에 따라 확산되지 못했다. 특히 사찰 소유의 유휴토지 대부분이 전답과 임야인데다 대단위보다는 소단위 토지들을 여럿 갖고 있어 태양광패널 설치에 적합하지 않다는 결과를 받기도 했다. 열악한 사찰재정도 문제였다.

조계종은 협약에 따라 부지 타당성 조사를 비롯해 계약체결 시 자본 투자, 시공과 운용 등을 한국동서발전으로부터 제공받게 됐다. 유구한 역사 속에서 자연과 조화로운 가람을 추구해온 한국불교가 이번 기회를 바탕으로 유휴토지 활용방안을 수립하고, 환경보전에 보다 앞장서는 종교로 거듭나길 기대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 · 세계화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박종수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전 북 지 사 : (063)910-8977
부 산 지 사 : (051)405-9402
충 청 지 사 : (042)631-7747
영 주 지 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악령, 귀신 잡는 스님이 있어 화제

憑依(빙의)와 귀신병(鬼神病)

은 자신의 생각 의지 마음과 상관없이 악귀에 조종 당하여 자신과 가정은 예기치 못한 행동으로 끔직한 사건으로 비화되거나 또는 집안이 망신과 수치로 황폐화되고 사회적으로는 각종 사건사고에 연관되어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본인 또는 가족 중에 다음과 같은 현상들이 있으면 빙의가 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으며, 청정 수월도량 자비사와 인연이 되어 가정에 사랑과 건강함과 평화가 깃드시길 기원합니다.

빙의와 귀신병의 주요 증상

* 혼자 중얼거리고 방에서 누구하고 대화 하듯이 씨부렁거린다. * 환청이 들리고 신경이 예민하여 고함을 지르고 발작을 일으킨다. * 공황장애와 과대망상 우울증으로 자살 하고픈 마음이 자주 생긴다. *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도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어깨가 한 짐이 되어 무겁고 양쪽 팔과 다리와 허리가 찢어질 듯이 아프다. * 병원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다하는데 항상 머리가 무겁고 아픈 두통이 계속 되고 몸 전체가 몸살 난 것처럼 고통스럽다. * 평상시는 순하고 순한데 술만 마시면 난폭해지고 폭력적인 사람으로 변화되고 이상한 사람으로 바뀐다. * 무엇에 홀린 듯이 술을 연속하여 밤새도록 마시거나 또는 줄 담배를 피운다. * 몸속에 귀신이 드나드는 느낌이 들고 이유 없이 몸이 아프거나 잘 나가든 집안이 갑자기 몰락한다. * 술은 마시면 말과 방언이 튀어 나오고 본인이 무슨 행동을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고 평상시와 다른 폭력적인 사람으로 변한다. * 누가 집에 들어와서 음식에 약을 타서 먹지 못하게 한다는 말도 안되는 말을 한다거나 성격이 포악하고 욕을 잘하는 경우 * 돌발적인 행동과 발작을 일으키고 자꾸 누군가 자신을 해치려고 한다거나 귀에다 대고 속삭이는 경우. * 신내림굿을 하였는데 도리어 더 이상한 사람으로 변했다. * 신의 제자가 되기 위해 신 내림굿을 하였는데 신 제자의 길을 포기하고 원상복귀를 원하고 있는 사람. * 돌아가신 조상이 좋지 않은 모습으로 꿈속에 자주 나타난다. * 계속하여 악몽을 꾸거나 헛것이 보이고 귀신이 보인다. * 귀신하고 사랑을 한다. * 입산수도 하다 오히려 잡귀에 씌어 고통 당하고 있다. * 신병과 귀신병으로 고생하고 있다. * 집안에 연속하여 대형 사건사고가 발생하고 가족 구성원이 아무 이유 없이 줄초상을 당한다. * 종교계통의 일을 하는데 빙의 되어 있다. (예를 들면 자신이 부처이고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 * 큰 충격을 받아서 정신이 나간 것처럼 행동한다. * 가족 중에 정상적이지 못하고 누가 봐도 이상한 행동을 한다. * 불교, 기독교 등 종교와 상관없으며 귀신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반드시 해결되며 국내와 해외에 거주하여도 본인이 직접 오지 않고 가족이 와도 무방합니다. **위와 같은 증상이 있으면 몸과 마음과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청정수월도량 자비사와 인연이 되어 잡귀 마장 사탄 중엄신 조상신등 악마 잡귀의 무거운 짐을 벗어 가정의 건강함과 평화와 사랑이 넘치는 가정으로 새롭게 태어나길 바랍니다.**

그 어떠한 악령귀신도 불법승으로 단 한번에 제도하여 고통의 무거운 짐을 내려 놓게 하며 심신의 안녕과 평화를 찾게 합니다.

다른데서 몇번이나 했는데 안되더라 하는 마음을 버리시고.....

반드시 해결되는데 믿지못하고 의심하고 망설이는 것은 또 뭐꼬!!!

귀 대한불교 자비사 예약 상담전화 010-8600-7409 (서울 강남구 대치동 2호선 선릉역 지하철 1번 출구)